

보건복지부,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로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

- 박민수 제2차관, 대한외과학회·의사회 간담회 개최(9.5.) -

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5일(화) 오전, 대한외과학회, 대한외과 의사회를 만나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,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* 이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, 외과 전공의·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「필수의로 지원대책」(’23.1.31.) 및 「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」(’23.2.22.)

복지부는 장기이식, 소아 수술, 암, 복부대동맥류 및 중증외상 수술 등 고난도, 중증, 응급수술이 다수인 외과 진료에 대해, 진료 기반(인프라)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. 이번 필수의로 지원대책에도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저평가 분야 보상강화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.

박민수 차관은 “고난도, 중증·응급수술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” 라고 말하며, “외과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,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<붙임> 대한외과학회·대한외과의사회 간담회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임혜성 (044-202-2670) 정순애 (044-202-2661)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(일시·장소) '23. 9. 5.(화), 07:30 ~ 08:30, 서울 중구
- (주요 내용)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현안논의 등
- (참석자) 보건복지부, 대한외과학회, 대한외과의사회
 - (복지부) 제2차관, 보건의료정책관, 필수의료총괄과장
 - (학회 등 4인)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및 의사회 회장 등 4명

구 분	성 명	직 위
대한외과학회	신 응 진	이 사 장
	이 강 영	정책이사
	박 도 중	기획이사
대한외과의사회	이 세 라	회 장

□ **진행 계획(안)**

※ 시간 등 계획 변동 가능

시 간(60')		내 용	비 고
07:30-07:35	05'	○ 인사 말씀	2차관
07:35-08:30	55'	○ 주요 내용 논의 - 현장의견 수렴 및 현안논의, 지원방안 등 정책제언	참석자